

수직 이동 동사의 다의성 연구*

- '오르다'와 '내리다'를 중심으로 -

안 혁**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수직 이동 동사인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여 더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시도이다. 두 동사 '오르다/내리다'는 다의어 동사로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원형과 주변 의미가 방사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동사는 수직적 위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동이라는 의미적 원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의 의미 네트워크를 가지며, 네트워크적 특성이 국어 사전의 의미 기술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주변 의미는 의미적 원형에서 은유적으로 혹은 환유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환유적 확장은 이동 의미가 정교화되거나 특정 양상이 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5528).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부교수

각되는 경우이며, 은유적 확장은 이동 의미와 유사성을 기반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동사 ‘오르다/내리다’의 수직 이동 의미는 특정 구문과 함께 사용된다. 특히, 주변 의미인 특성의 발생과 관련되는 ‘오르다’는 주어와 발생 장소의 구문과 사용되고, ‘내리다’는 주로 사역자와 대상이 타동 구문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동사 ‘오르다/내리다’는 다른 동사, 명사, 형용사, 접두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하며, 이 합성어 동사들도 상승과 하강 이동의 원형적 특성과 상승과 하강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오르다, 내리다, 다의어, 의미 네트워크, 합성어, 인지언어학

I. 서론

많은 언어 기호 혹은 언어 표현이 한 형태에 둘 이상의 의미 혹은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하나의 형태가 가지는 다 의미성 혹은 다 기능성을 언어학에서 다의성 혹은 동음이의성으로 부르며, 이는 언어학의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다의성과 동음이의성은 그 의미들이 가지는 관계의 양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다의성은 의미들 사이의 연관성이 있고, 동음이의성은 우연히 형태가 같은 뿐, 그 의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적 연관성이라는 변별 기준의 주관성으로 인해 실제 언어 표현의 다의성과 동음이의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지언어학은 의미론 중심의 문법 기술을 지향하며 어휘 의미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의미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다의어는 인지언어학의 중심적 연구 대상이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의어의 개별 의미들은 서로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의미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이론 언어학을 하는 연구자에게 유익하며, 실제 사전 편찬이나 해당 언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지향점은 한국어 동사 ‘오르다’, ‘내리다’의 다의성 네트워크의 합리적 기술을 통해 개별 의미의 특징과 상관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의어의 의미 기술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의는 개별 의미의 위계(hierarchy)에 대한 것이다. 다의어의 의미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다면, 그 개별 의미들은 각각 다른 층위에 있다. 인지언어학은 중심적인 의미를 원형(prototype)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의미를 주변적인(peripheral)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검토하고, 현재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인지언어학의 원형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는 것을 본 논문의 두 번째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 주제는 동사의 구문적 특성이 동사의 어휘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이는 것이다.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은 인지적 관점에서 구문 역시 형태소나 어휘 같은 언어 단위처럼 형태와 의미가 자의적으로 결합된 언어적 단위로 간주한다. 수직 이동을 의미하는 구문이 해당 동사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적이며 통사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동사의 어휘의미 기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사의 적절한 어휘의미 기술을 위해 구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오르다’와 ‘내리다’라는 소위 반의어 동사의 의미 비교를 통해 두 동사가 어떤 식으로 상응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소위 반의어로 간주되는 두 다의어 동사의 의미 구조를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적 상관 관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기술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다의어의 의미 구조, 상관된 동사 구문의 어휘 의미적 특성과 구문적 특성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본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상투적 표현은 언어 사용자로서의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언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언어는 개인이나 사회, 문화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적 지표이다. 이는 언어 사용자가 의사소통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패턴을 통해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나 문화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만약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언어 사용자들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고, 두 다른 언어가 유사하지만 그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어가 언어 사용자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적 성격을 갖지만 해당 지표를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면적 관점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연구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 해당 언어 표현과 유사하거나 상이한 언어 표현과의 비교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언어 기능 중에서 백미(白眉)는 한정된 자원인 유한한 언어 표현으로 무한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 자원의 유한성과 상황의 무한성이라는 비대칭성은 언어 표현의 형태와 의미라는 자의적 관계가 일대일 대응과 일대다수의 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언어적 해결책을 보여준다. 혼재된 관계의 대표적 사례가 본 논문의 중심 주제인 다의성(polysemy)이다. 한 형태에 관련된 여러 의미가 결합된 현상인 다의성은 어휘론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의어 혹은 다의적 범주의 개별 의미들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이루어졌다.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보다 중요하거나 더 중심적인지에 대한 의미들 간의 위계 설정을 위한 이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야콥슨은 일반 의미(*general meaning; Gesamtbedeutung*)를 의미 연구에서 중심적 개념으로 간주하고 포테브냐와 페슈코프스키를 인용하여 한 형태의 개별적 사용의 총합은 일반 의미가 아니며, 전체 체계 속에서 그 형태와 의미의 관계가 기술되는 것이 일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름슬레우와 같이 개별 격을 격리하여 정의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격 대립의 일반적 체계 속에서 개별 격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격의 일반 의미 탐구에 바람직한 방식임을 설명하고 있다.¹⁾ 관련하여 쿠틸로비치는 몇 개의 부분 의미(*частное значение*)를 가지는 하나의 일반 의미(*общее значение*)를 단어나 문법 범주에 적용하는 것이 의미 연구의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한다. 야콥슨이 기본 의미(*основное значение; Grundbedeutung*)와 부분 의미(*spezifische Bedeutungen*)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요 의미(*главное значение; Hauptbedeutung*)라는 것을 구분해 사용

1) Roman Jakobson, Linda R. Waugh and Morris Halle eds., *Russian and Slavic Grammar: Studies 1931-1981*, Berlin·New York·Amsterdam: Mouton Publishers, 1984, pp. 59-66 참고.

하였으며 여기서 기본 의미는 일반 의미(общее значение)에 상응한다고 쿠릴로비치는 언급한다. 쿠릴로비치는 1935년부터 일차와 이차(의미) 기능(первая и втора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функци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일차 기능은 야콥슨의 주요 의미와, 이차 기능은 부분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구어에서 사용되는 고유 의미와 전이 의미라는 표현은 단어의 다른 사용 사이에 어떤 위계가 있다는 것을 표상한다. 부분 의미는 구체적 조건(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 주요 의미는 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부분 의미는 주요 의미의 의미적 요소에 문맥의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다.²⁾ 이렇게 대가들은 의미의 위계 설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수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는 용어, 특히 일반 의미, 주요 의미, 기본 의미, 일차 기능 같은 용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며 각 의미들이 어떻게 다른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문맥 독립적인 주요 의미와 문맥 의존적인 부분 의미의 구분은 분명하며, 상대적으로 일반 의미의 정의가 모호하다. 그 정의에서 일반 의미라는 것이 구체적 문맥에서 사용되는 부분 의미를 포괄한다고 설명된다. 이 설명은 일반 의미가 모든 부분 의미에 논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미와 해당 부분 의미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해석의 기반 위에서 다의성이라는 범주가 일반 의미라는 것을 통해 개별 의미 혹은 부분 의미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언어 표현의 다의성에 대한 설명은 위의 다른 의미 유형 설정을 통한 설명 시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도된다. 인지언어학은 이러한 한계를 극

2) Е.Р. Курилович, *Заметки о значении слова, Очерк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М.: Изд.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2, pp. 237-239. 해당 논문의 원전은 Е.Р. Курилович, “Заметки о значении слов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3, М.: АН СССР, 1955, pp. 73-81.이며, 본 참고문헌은 쿠릴로비치 연구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집대성한 단행본이다.

복하기 위해 다른 학문 특히 심리학적 방법론에 의한 학문 융합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한 어휘의 의미가 하나 이상인 경우를 다의어로 간주하며 이러한 다의어의 개별 의미들은 하나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형성한다고 전제한다. 이 범주의 중심에는 원형(prototype)³⁾적 구성원이 있고, 원형적 구성원은 주변적 구성원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범주를 구성한다. 이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범주는 방사 구조(radial structure)를 갖는다. 즉, 인지 문법에서 다의어의 의미는 동질적 구성원의 분석 불가능한 유한한 집합이라기보다 한 의미망을 구성하는 원형과 주변적 의미들이 위계(hierarchy)적으로 구조화된 망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인지언어학의 망 모형(network model)은 원형 이론과 도식성에 근거한 범주화의 종합이다.⁵⁾ 원형 이론과 도식성의 개념을 본 연구에서 모두 아우를 수는 없지만,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한 범주의 원형이라는 것은 유형적 사례들의 도식화된 표상(a schematized representation of typical instances)으로 정의된다.⁶⁾ 이 원형이라는 표상의 구체적 사례라면 해당 범주의 중심적 구성원이고, 표상과 유사하거나 닮은 것으로 판단되면 주변적 구성원으로 단일 범주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 범주의 구성원 자격은 정도의 문제이며 구성원 자격의 자질의 점검표라는 것이 부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되는 가의 여

3) 이와 관련하여 John R. Taylor,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의 1장과 2장 참고.

4) George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p. 91~92.

5) 이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Lakoff 1987, Langacker 1987을 참고하라.

Ibid.; Ronald W. Langacker,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6) Ronald W. Langacker,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2nd edn.)*, Berlin: Mouton de Gruyter, 2000, p. 266.

원형 이론의 선구자는 엘레노어 로쉬 교수로 다음 연구를 참고하라.

Eleanor Rosch,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Issue 3, 1973, pp. 328~350;

Eleanor Rosch,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Eleanor Rosch and Barbara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78, pp. 27~48.

부는 예측 불가능하고 범주화자(conceptualizer)의 관용성에 의존적이다. 그러므로 범주의 경계도 고정적이지 않다.⁷⁾ 이러한 원형에 기반한 범주의 개념은 범주의 구성원들이 한 망 속의 마디(node)이며 범주화 관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 범주화 관계는 원형으로부터의 확장(extens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래내커는 두 범주 구성원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A] \rightarrow [B]$ 의 정교화(elaboration) 관계를 제안한다. 후자는 전자에 세부 사항이 특정되거나 A의 특정 사례가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관계는 확장(extension)으로 $[A] \rightarrow [B]$ 의 점선 화살표로 표시된다. 이 관계는 두 구성원이 양립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전자에 의해 범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종류의 범주화는 상호 유사성의 지각(a perception of mutual similarity)으로 불리며 $[A] \leftrightarrow [B]$ 의 점선의 양쪽 화살표로 표시된다. 이 범주화는 확대와 달리 방향성이 없다는 특성이 있다.⁸⁾ 레이코프는 다의성 기술의 과정에서 두 유형의 도식 연결 유형을 제안한다. 사례 연결(instance link)과 유사성 연결(similarity link)이라는 두 유형은 위의 래내커의 정교화와 확장 도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레이코프의 사례 연결은 $A \rightarrow B$ 인데 A가 B의 사례라고 소개하고 있다.⁹⁾ 레이코프의 영어 전치사 over의 분석에서 모든 의미 도식이 유사성 연결로 소개되고 있지만,¹⁰⁾ 이 범주의 방사성을 서술하는 뒷 부분에서 같은 그림이 의미적 원형인 1도식과 2, 4 도식을 사례 연결로 표기하는 것¹¹⁾으로 보아 저자의 실수거나 인쇄 상의 오류로 보인다. 본 연구는 래내커의 정교화와 확장이라는 관계가 두 구성원의 포함 관계라는 점에서 인접성에 기반하는 환유적 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래내커와 레이코프의 두 학자 모두 상정한 유사성에 기반한 관계가 범주 구성원

7) Ibid., pp. 266-267.

8) Ibid., p. 266.

9) George Lakoff, op. cit., p. 424.

10) Ibid., p. 431, 그림 21.

11) Ibid., p. 436, 그림 27.

사이의 두 관계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짓고 실선 화살표를 환유적 관계, 점선 화살표를 은유적 관계라고 명명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환유적이고 은유적 관계는 다의어 의미 구조를 밝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야콥슨의 일반 의미와 쿠릴로비치의 일차 기능과 유사하게 원형 이론에서 원형의 개념은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정의를 갖지만 “가장 잘”이라는 다소 모호한 기준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와 달리 원형은 범주 전체를 아우를 필요가 없고 하나의 구체적 범주 구성원을 그 대표로 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인간이 외부 현실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상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우, 구성원의 위상을 상이하게 보고 원형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을 설정한다는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을 언어에도 적용하였다. 자연 범주의 구조적 특성을 인지적 보편성이라는 점에서 설명하는 이 원형 이론은 인간의 외부 현실 인식 체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설명력을 갖는다. 인지언어학은 언어의 어휘 의미 뿐만 아니라 문법의 영역까지 이 방법론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 위의 래내커와 레이코프의 연결 유형인 정교화와 확장, 상호 유사성이 문법적 의미에도 적용된다. 이는 문법은 개념화라는 인지언어학의 전제에 기인한다. 문법은 형태와 의미의 자의적 쌍인 언어 단위가 가지는 사용과정에서 고착화된 패턴의 총체이며, 이 총체는 연역적, 인위적으로 정해진 규칙의 합이 아니라 실제 언어 단위의 사용에 기반한 패턴이 다른 단위들과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개념화한 것이다.¹²⁾ 이에 따르면 문법 범주 역시 원형적 사례와 주변적 사례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다의어 의미망 구조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다의어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개별 의미를 원형 이론과 의미망 이론으로 재조명하여 국어 사전에서 해당 동사들의

12) William Croft and Alan D.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1~4.

의미 기술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형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가 서로 어떤 의미적 상관성을 갖는지를 래내커와 레이코프의 연결 유형인 정교화와 확장, 상호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한 형태에 여러 의미가 있는 어휘를 다의적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언어 표현의 분석에서 다의성을 동음이의성보다 우선적으로 간주한다.¹³⁾

1. ‘오르다/내리다’ 선행 연구 분석

한국어의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는 의미적으로 대상의 수직적 위상 변화를 동반하는 이동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상승, 후자는 하강 이동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동사의 의미 구조는 어휘적 복잡성 뿐만 아니라 구문적 복잡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구문 문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동사의 확장된 의미 속에 이동의 구문이 갖는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사전에서 동사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보면서 그 의미적이고 구문적 특성과 사전 의미 기술의 적절성에 대해 보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사 ‘오르다’의 의미는 3개의 구문을 가지는 다의어이다. 첫 번째 의미 항목은 오르는 행위를 하는 장소를 ‘~에’나 ‘~을’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행위 자체는 위쪽을 지향하는 구체적 행위이다. 두 번째 의미 항목은 행위 자체가 구체적 행위이거나 추상적 행위일 수 있으며, 행위의 배경이 되는 장소나 새로운 상태가 ‘~에’로 표현되는 경우로 9개의 하위 의미로 구분된다. 세 번째 의미 항목은 행위 주체만이 나타나는 구조를 갖는 경우로 8개의 하위 의미로 구분된다. 전체 18개의 의미가 ‘오르다’ 동사의 의미로 등록되어 있다.

연세한국어사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르다’ 동사에 대해 4개의 구문

13) Dirk Geeraerts & Hubert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의 6장 참조.

을 설정하고 그 속에 하위 의미를 세분화한다. 첫 번째 구문은 ‘X가 Y에 오르다’의 형식으로 행위의 주체와 행위 발생의 배경 혹은 장소가 명시된다. 여기에 11개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X와 Y에 들어갈 사건 참여자의 의미적 특성을 개별 의미 뒤에 기술함으로써 사전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두 번째 구문은 ‘(Y에) X가 오르다’로 8개의 의미를 기술한다. 전자의 구문과 사건의 배경에 해당하는 ‘Y에’의 수의성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 세 번째 구문은 ‘X가 오르다’로 세 개의 하위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X가 Y를 오르다’라는 구문은 한 개의 하위 의미를 갖는다. 24번째의 마지막 의미는 ‘부어올랐다, 피어오르다, 달아오르다’ 등의 동사 어간에 ‘-아/어’의 접사 첨가된 오르다 동사의 합성어를 소개하고 있다.

반면에 ‘내리다’ 동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9개의 구문을 가지며, 그 하위 의미로 18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통사 구조는 ‘눈, 비, 어둠 등이 오다’의 자동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자동사의 세 번째 의미로 ‘살이나 부기가 빠지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내리는 행위의 발생 장소가 명시된 ‘-에 내리다’의 통사 구조를 갖는 구문이 있는데 세 번째의 구문인 ‘-에서/을 내리다’의 의미로 ‘탈 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겨가다’와 매우 유사해서 이 둘을 다른 의미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 두 번째 구문의 첫 번째 의미는 ‘타고 있던 물체에서 밖으로 나와 어떤 지점에 이르다’로 교통 수단의 명칭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 번째 구문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로 ‘서울역에 기차에서 내려’와 같이 생략되지 않은 교통 수단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구문은 타동사적 용법의 ‘내리다’ 동사이다. ‘-을’의 직접 목적어를 가지며, 다음의 예문에서 소매라는 구체적 대상이 견어져 위에 있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인 손 쪽으로 내려온다는 이동인 반면에 ‘결론을 내리다’는 이동과 상관없는 고민하는 행위가 완료되어 고민의 결과물인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오르다’ 동사의 등장 의미와 연결된다. 소매를 걷었을 때 소매 부분이 접혀 들어갔다가 내리면 원래 옷 소매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내리다’ 동사의 의미는 등장의 의미이다. 결론이 없다가 생겼다는 점에서 (1ㄴ) 역시 등장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소위 반의어로 간주되는 두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가 유사동의어 혹은 유의어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 (1) ㄱ. 소매를 내리다.
- ㄴ. 결론을 내리다.

다섯 번째의 구문은 ‘-에서 -을 내리다’의 통사 구조를 가지는 의미로 첫 하위 의미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대상을 하강 이동시키는 것이고, 이 의미는 추상적으로 인터넷에서 글을 삭제하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여섯 번째 구문은 다섯 번째 구문과 이동의 출발점과 목적지라는 점에서 상응한다. 즉, 전자에서는 하강 이동의 목적지가 명시되고, 후자에서는 출발점이 명시된다. 일곱 번째 구문은 가격이나 온도, 성적 등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의미와 체중이 내리다 같은 소화의 의미, 그리고 무대의 막, 커튼이 아래로 움직이는 의미를 갖는다. 여덟 번째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의 의미가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아래 사람에게 상이나 벌을 주거나 명령이나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세한국어사전은 5개의 구문에 상응하는 25개의 의미를 기술한다. 첫 번째 구문은 장소의 부가어가 없는 자동사적 구문이다.

- (2) (비, 열, 막, 체중)이 내리다.

두 번째 구문은 목적지가 되는 장소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특정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해지다는 의미의 구문이다. 네 번째는 위의 첫 번째 구문을 타동 구문으로 만드는 구문이다. 직접 목적어가 이동을 하게

되는 사역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통사적으로 네 번째 구문과 유사하지만 추가적으로 수여자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사용되는 구문이다. 다음 예문에서 ‘상을 내리다’라는 표현의 간접 목적어는 문맥 상 소녀로 유추될 수 있다.

(3) 임금님은 소녀를 종의 신분에서 풀어 주고, 후한 상을 내렸다.

동사의 의미 기술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개별 의미의 연관성이다. 그러나 기존 국어 사전의 의미 기술에서 그 연관성은 소위 ‘격틀’로 언급된 구문의 유사성이 전부이다. 의미의 배열 역시 통사적 유사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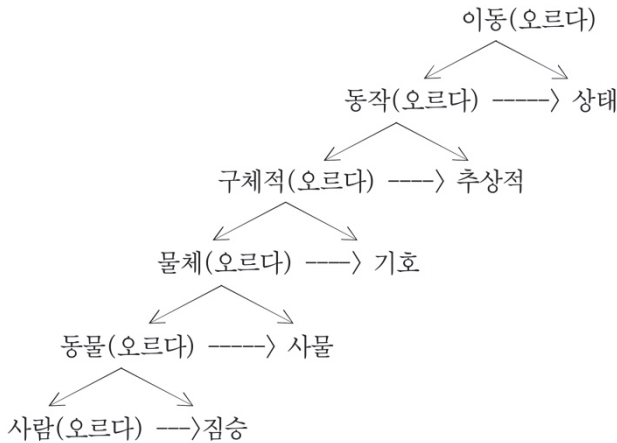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학술적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조은정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올라가다, 올리다, 내려가다, 내리다’의 네 동사를 의미적 관점에서 비교하였다.¹⁴⁾ 한국어와 일본어의 ‘올라가다, 올리다’ 동사를 ‘좋은 것은 위’, ‘수치가 높은 것은 위’, ‘눈에 보이는 것은 위(확실한 것은 위)’, ‘사물의 시작과 끝은 위’, ‘북쪽으로 가는 것은 위(중앙으로 가는 것은 위)’라는 다섯 가지의 은유를 기반으로 비교하여, 일본어가 한국어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 짓고 있다. 그리고 ‘내려가다’, ‘내리다’의 두 동사 역시 동일한 은유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역시 일본어 동사가 의미적으로 더 다양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변영수는 동사 ‘오르다’의 의미를 래내커의 의미망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주어의 유형이 사람이라는 원형에서 사물, 기호, 상태 등으로 확장된다는 의견이지만 원형과 도식의 연관성이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사람(오르다)는 원형이

14) 조은정, 「한일 공간 이동동사의 메타파적 고찰 - 「あがる, あげる/올라가다, 올리다」와 「さがる, さげる/내려가다, 내리다」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31, 2005, 63~81쪽.

15) 변영수, 「‘오르다’의 의미 확장 연구」, 『겨레어문학』 39, 2007, 5~39쪽.

고 이것이 짐승으로 확장되며, 그 둘에 모두 연결된 것은 동물이라는 도식(schem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식은 원형으로 기능하여 사물이라는 새로운 확장 의미인 사물과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 설정이 모두 적절하지는 않다. 구체적(오르다)는 추상적으로 확장되는데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동작(오르다)로 표현되지만 그 두 개념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의미확장의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 1〉 변영수의 오르다 ‘주어’의 의미망¹⁶⁾

그 후에 변영수는 21개의 ‘오르다’ 동사의 의미를 설정하고 그것을 주어와 객체어 의미망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분류 역시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관찰된다. 예를 들어 8번째 의미인 ‘물에 오르다’가 확장된 것이 ‘사물이 위쪽으로 움직이다’의 13번 의미인데, 육지가 물보다 위쪽 혹은 높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적 요소가 아니며, 후자가 전자에서 확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앞의 논문, 12쪽.

2. ‘오르다’ 의미 분석 - 의미적 원형 연구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의 ‘오르다/내리다’ 동사의 의미 기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의미 기술을 기준으로 동사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표준국어대사전은 3개의 구문에서 18개의 개별 의미를 오르다 동사가 갖는다고 기술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오르다 동사의 의미 기술

1 【…에】【…을】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1-1)

2 【…에】

「1」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2-1)

「2」 탈것에 타다. (2-2)

「3」 어떤 정도에 달하다. (2-3)

「4」 길을 떠나다. (2-4)

「5」 물에서 육지로 옮다. (2-5)

「6」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 (2-6)

「7」 식탁, 도마 따위에 놓이다. (2-7)

「8」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 (2-8)

「9」 기록에 적히다. (2-9)

3

「1」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 (3-1)

「2」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지다. (3-2)

「3」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 (3-3)

「4」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 (3-4)

「5」 평균이나 독 따위가 옳다. (3-5)

「6」 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 (3-6)

「7」 때가 거죽에 묻다. (3-7)

「8」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 (3-8)

우선 ‘오르다’ 동사의 의미적 원형을 수직적 위상 변화의 이동과 이동 장소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첫 번째 의미(1-1)로 설정할 수 있다. 주어는 물리적이고 수직적 위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상승 이동의 능력을 가진 개체가 되고 이동이 나타나는 장소는 직접 목적어 혹은 장소격(locative)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 기술에서 알 수 있다. 이동이라는 원형적 의미로 인해 장소격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일부 명사는 ‘오르다’ 행위의 대상으로 개념화되는 경우, ‘-을’의 목적격 조사와 함께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 (4) ㄱ. 매주 산을 오르다.
 ㄴ. 인왕산 정상에 오르다.

‘오르다’ 동사의 의미적 원형(semantic prototype)은 ‘상승 이동’과 ‘목표의 장소’라는 중요한 요소를 가진다. 이는 베쭈비츠카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영어의 climb ‘오르다’ 동사를 분석하면서 두 의미적 요소로 상정한 ‘위로의 이동(ascending)’과 ‘기는 행동(clambering)’과 상이하다.¹⁷⁾ 위의 (4)의 예문에서 ‘오르다’ 동사는 베쭈비츠카의 분석처럼 상승 이동과 기는 행동이 수반될 수 있기에 해당 동사의 의미적 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상승 이동’과 ‘목표의 장소’라는 원형을 구성하는 개념은 기존의 구성성분 분석에서 언급되는 의미 자질이나 의미 원소가 아니며, 이는 개념적 은유나 환유를 통해서 ‘오르다’ 동사의 주변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유연한 의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기차나 배 등의 교통 수단에 탑승하다(2-2)’는 의미의 ‘오르다’는 위의 원형과 매우 근접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이나 정상에 오르는

17) Anna Wierzbicka, “‘Prototypes save’: on the uses and abuses of the notion of ‘prototype’ in linguistics and related fields”, Tsohatzidis, S.L. ed., *Meanings and prototypes: Studies in linguistic categor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p. 347~367.

행위가 지속가능한 벤들러의 ‘행위(activity)’라고 한다면 탑승은 ‘달성(achievement)’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물론 특정 문맥에서 “버스에 오르는 중”과 같은 행위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달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오르다’ 동사의 사용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통 수단이 되는 자동차나 기차가 사람이 탑승하기 전보다 물리적으로 더 높다는 점일 것이다. 이 주변 의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의미가 ‘길을 떠나다, 무슨 일이나 과정을 시작하다’(2-4)의 의미가 있다.

(5) 고달픈 여행을 마치고 귀로에 오른 사람 같구나.

탑승의 의미와 ‘길을 떠나다’의 의미는 서로 상적 상관성(aspectual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탑승이나 과정 시작의 의미 모두 특정 사건을 달성으로 보는 완료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의미가 행위 결과에 초점을 부여하는 완료상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료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더 두드러진다.

(6) 사업이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교통 수단에 탑승이나 여행을 시작하다는 구체적 행위에서 ‘(사업 등이) 어떤 정도에 달하다’(2-3)의 추상적 정도를 나타내는 행위로 확장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위 예의 ‘궤도(軌道)’라는 어휘에서 추론해보면 ‘여로’나 ‘귀경길’과 같은 ‘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정은 길이다’라는 개념적 은유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의미는 이 개념적 은유에 기반한 의미적 확장(semantic extension)의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확장의 다른 양상은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2-1)라는 의미에서 관찰된다. 해당 의미는 오르다 동사의 목적지가 ‘왕위, 관직, 벼

18) Zeno Vendler,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슬길' 같은 지위나 신분을 지시하는 명사가 사용되며, 해당 구문은 이동이 아닌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동사의 상이라는 관점에서 달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분 변화의 의미는 원형적 이동과 매우 유사한 '물에서 육지로 옮다'(2-5)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륙의 의미는 위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바다나 강의 고도가 인접한 육지보다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의미는 원형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위치의 변화라는 개념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추상적 지위나 신분에 적용된다면 이는 지위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육지에 오른다는 의미는 주로 대상이 목적지에 나타나 시야에 들어와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시야에 “등장”한다는 의미로 ‘식탁, 도마 따위에 놓이다’(2-7)를 볼 수 있다. 어떤 음식이나 식탁에 오르면 해당 구문의 초점은 그 음식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다’(2-8)나 ‘기록에 적히다’(2-9)의 의미로 은유적으로 확장된다.

(7) ㄱ. 남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 아들은 민적상 연실이보다 일 년 뒤에 난 한 부모의 자식으로
오르게 되었다. <김동인, 김연실전>

그러나 이 예문에서 확장은 단순히 은유적이지 않으며, 환유의 내용도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과정은 길이다라는 은유로 설명했던 궤도 역시 단순 은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은유와 환유가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기능하는 의미 현상을 구센은 은환유(metaphonymy)¹⁹⁾로 명명한다. 은

19) Goossens(1995: 159)에서는 “은유와 환유는 인지과정으로 뚜렷이 구분은 되지만, 일상의 언어표현 속에서 그 둘은 상호 배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은환유’(metaphonymy)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L. Goossens et al., *By Word of Mouth: metaphor, metonymy, and linguistic action in a Cognitive perspectiv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5.

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레이코프와 터너도 어떤 시(詩)에서 ‘까마귀’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은유와 환유의 상호 작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²⁰⁾ 즉, ‘부분-전체 관계’에 의해 ‘까마귀’의 검은색은 환유적으로 ‘죽음’을 나타내고, 동시에 ‘죽음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은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종렬은 이 현상을 첫 번째 하위 범주인 은유와 환유가 개념적 차원의 상호작용하는 경우와 언어 표현에서 혼재하거나 연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전자는 다시 은유의 환유적 동기화와 환유의 은유적 동기화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다.²¹⁾

위에서 언급된 ‘오르다’의 의미 중 ‘궤도에 오르다’, ‘입에 오르다’, ‘민적(호적)에 자식으로 오르다’는 소위 은환유 혹은 개념적 차원의 상호 작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동사 ‘오르다’의 의미는 구체적 상승 이동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완료라는 상적인 등장의 의미로 사용된다. 개념적 은유의 공식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오르는 것이다’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등장의 의미로 오르다가 사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아마도 이는 상승 이동의 의미와 결부되어 등장이 수월하지 않거나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승 이동의 목적지 지표와 결합된 전체 표현의 의미는 환유적으로 볼 수 있다. 관용구인 ‘궤도에 오르다’는 기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20) George Lakoff &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21) 이종렬, 「국어 은환유의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27, 2005, 45~70쪽. 이종렬은 이 분류의 사례가 다음과 같은 연구에 기반한다고 설명한다. 은유에 대한 환유적 동기화 양상은 Barcelona(2000), Radden(2000)에 의해 제시되며, 환유에 대한 은유적 동기화 양상은 Gossens(1990)에서 제시된 유형들 중에서 일부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연쇄나 혼재 같은 언어 표현에서 상호작용으로 구분한다. A. Barcelona,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 Barcelona eds.,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Berlin, NewYork: Mouton de Gruyter, 2000; G. Radden, “How Metonymic are Metaphors?”,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0; L. Goossens, “Metaphtonymy: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expressions for linguistic action”, *Cognitive Linguistics 1*, 1990, pp. 323~340.

다. 이외에도 기차를 정비하거나 기관사가 운행 준비가 되어야 하는 등의 많은 준비 행위가 기차의 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궤도에 오르는 행위가 정상적 운행을 의미하고, 이 관용구의 함의가 ‘일이나 행동이 발전하는 본격적인 단계가 되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환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자식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많은 과정의 하나이다.

동사 ‘오르다’는 상승 이동을 의미하며, 구문 문법의 관점에서 이동 구문과 같이 쓰인다. 이동 구문은 이동의 주체와 이동의 지표가 되는 목적지, 출발지, 경로 등이 포함된다. 이동 구문은 구문 문법 이론의 시작부터 이동 유발 구문(caused motion construction)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고 설명되었다.

(8) Pat sliced the carrots into the salad.²²⁾

한국어에서도 이동 구문의 생산성은 이동형에서 ‘X-이 Y-을 Z-에게서 V-다’ 구문의 다의성 분석에서 언급된다. 이 구문의 기본 의미는 “대상의 이동”이며 근원, 경로, 목표, 이동대상(Source, Path, Goal, Theme) 등이 참여하는 <이동>의 의미 영역 속에서 파악된다. 다음 예문에서 ‘제거하다’의 동사의 의미와 이동 구문이 결합하여 “외부의 힘에 의한 소유물의 박탈 이동”을 의미한다.²³⁾

(9)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죄와 수치를 제거하려 한다고 한다.

이렇게 동사 ‘오르다’의 어휘 의미인 상승 이동과 이동 구문이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상승의 의미를 표현하는 복합 구문을 형성한다고 볼 수

22) Adele Goldberg,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 7.

23) 이동형, 「“X-이 Y-을 Z-에게서 V-다” 구문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2008, 78쪽.

있다. 앞에서 언급된 ‘오르다’ 동사의 의미적 사례들은 구체적 이동의 경우 목표의 지표를 명시적으로 가진다. 그리고 은환유로 설명된 사례들도 목표라는 지표를 표현하며, 형식적으로 ‘X가 Y에 오르다’의 구문이다. 언급된 것처럼 ‘오르다’ 동사가 사용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목표에 도달하는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오르다가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 ‘오르다’의 의미 중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2-6)의 의미는 ‘많은 것은 높은 것이다’라는 방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와 관련된다. 다수 혹은 다량의 물건을 수직으로 쌓는다면 그 높이가 높아지며, 이러한 방향적 은유가 해당 동사의 사용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이 의미의 구문적 특성으로 지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다음 예문에서 ‘살이 오르다’라는 표현에서 지표가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 장소나 위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이 의미가 이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상태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10) 얼굴에 살이 오르니 귀여워 보인다.

이와 관련한 많은 의미들이 세 번째 구문에서 사용된다. 해당 구문은 주어만 존재하는 자동사적 구문으로 사용되며,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많아지거나 높아지다’(3-1),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여 지다’(3-2), ‘실적이나 능률 따위가 높아지다’(3-3)의 의미가 해당된다. 이 세 의미는 동사의 주어의 의미적 유형이 상이하지만, 그 양이 많아지거나 정도가 강해지거나, 높아지는 의미는 공통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동 구문은 이동하는 탄도체(trajector)의 변화만을 나타내므로 ‘X가 오르다’의 형식을 갖게 되고, 이동의 지표가 되는 근원이나 목표의 개념은 함의되지 않는다.

- (11) ㄱ. 등록금이 오르다.
 나. 삼시간에 불길이 올라 옆집까지 옮겨붙었다.
 다. 잠을 폭 자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라는 확장된 의미와 더불어 관찰되는 ‘오르다’ 동사의 다른 의미는 ‘퍼지다’이며, 사전에서 ‘어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다’(3-4), ‘평균이나 독 따위가 옳다’(3-5), ‘귀신 같은 것이 들리다’(3-6)로 기술된다. 이 의미는 등장과 증가의 중간적 위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등장의 장소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감정이나 기운이 퍼지고, 병이 옳고, 신이 들리는 장소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이족 보행으로 인해 신체가 수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감정의 퍼짐은 위의 양적 증가와 일맥 상통하고 평균이나 독이 옳는 것이나 신이 들리는 것은 위의 등장 의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동사 ‘오르다’의 사용 이유는 인간의 인식 기관이 집중된 머리 부분은 신체의 가장 높은 부분이고, 머리 부분의 변화가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퍼짐과 발생의 의미의 기준이 되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르다라는 동사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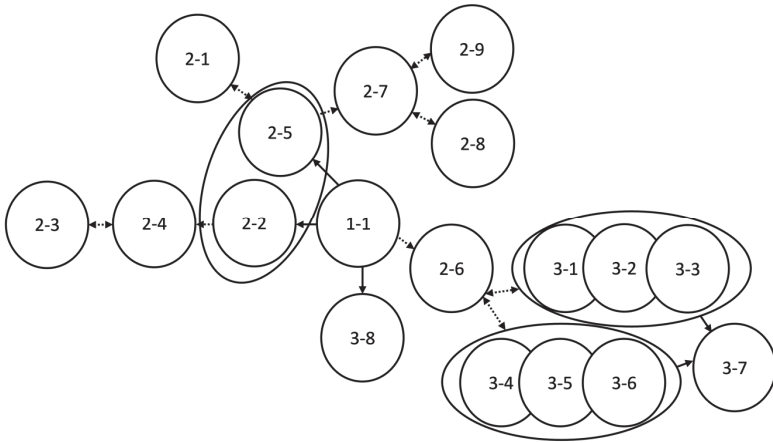
- (12) ㄱ. 부아가 치밀어 오르다.
 나. 음이 오르면 가려워 온몸을 긁게 된다.
 다. 무당들도 신이 올라야만 작두춤을 출 수 있다고 한다.

‘때가 거죽에 묻다’(3-7)의 의미는 앞의 증가의 의미와 퍼짐의 의미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한다. 때가 올랐다고 언급되는 것은 단순히 때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때가 오른다고 표현된다면 이는 곧 때가 많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그룹의 의미에서도 문장의 주어이자 이동의 주체가 ‘부아, 음, 신, 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의미적 특징은 주체가

현저하게 인식된다는 것이다. 구체적 대상인 경우는 시각적으로 관찰되고, 감정이나 추상적 대상은 언급되고 있는 사람에게 퍼지거나 충만해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많은 것은 높은 것이다” “보이는 것은 높은 것이다”의 은유가 이중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증가 의미 그룹과 달리 직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해당 대상의 소유자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마지막 의미인 ‘물질이나 물체 따위가 위쪽으로 움직이다’(3-8)의 의미는 불길이나 김이 실제로 오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시선이 그것들을 따라 위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래내커의 ‘주관적 이동(subjective motion)’의 경우로 볼 수 있다.²⁴⁾

- (13)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조세희, 기계 도시》



〈그림 2〉 ‘오르다’ 동사의 의미 네트워크

24) Ronald W. Langacker, op. cit. 참고.

결론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배열은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살이 오르다’(2-6)는 의미적으로 3 구문의 의미들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을 고려하여 재배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분/지위 변화(2-1)의 의미 역시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라는 것을 고려하면 재배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은유적 확장을 통한 ‘오르다’ 동사의 다의어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다의어의 의미 배열의 합리성을 검증할 수 있다.

3. ‘내리다’ 의미 분석

‘오르다’ 동사의 반의어라고 할 수 있는 ‘내리다’ 동사의 다의성 역시 위와 같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내리다’ 동사의 의미 기술을 대상으로 적절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내리다 동사의 의미 기술

1

- 「1」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1-1)
- 「2」 어둠, 안개 따위가 짙어지거나 덮여 오다.(1-2)
- 「3」 쪼갠거나 부엌던 살이 빠지다.(1-3)

2 【…에】

- 「1」 타고 있던 물체에서 밖으로 나와 어떤 지점에 이른다.(2-1)
- 「2」 비행기 따위가 지상에 도달하여 멈추다.(2-2)

3 【…에서】【…을】

- 탈것에서 밖이나 땅으로 옮겨가다.(3)

4 【…을】

- 「1」 위에 있는 것을 낮은 곳 또는 아래로 끌어당기거나 늘어뜨리다.(4-1)
- 「2」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4-2)

5 【…에서 …을】

- 「1」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아래로 옮기다.(5-1)
- 「2」 『정보·통신』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신문에 올린 파일이나 글, 기사 따위를 삭제하다. (5-2)

6 【…을 …에】

「1」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옮겨 놓다.(6-1)

「2」 가루 따위를 체에 치다.(6-2)

7 【(…을)】

「1」 값이나 수치, 온도, 성적 따위가 이전보다 떨어지거나 낮아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7-1)

「2」 먹은 음식물 따위가 소화되다. 또는 그렇게 하다.(7-2)

「3」 막, 휘장, 커튼 따위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다. 또는 그렇게 하다.(7-3)

8 【(…을) …에】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다.(8)

9 【(…을) …에/에게】

「1」 윗사람으로부터 아랫사람에게 상이나 벌 따위가 주어지다. 또는 그렇게 하다.(9-1)

「2」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 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9-2)

우선 ‘내리다’ 동사는 탄도체만 나타나는 ‘X가 내리다’ 구문이 첫 번째로 제시된다. 여기에는 세 하위 의미가 기술되는데, 첫 번째는 비나 눈 등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어둠, 안개가 퍼지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살이 빠지다’를 의미한다. 이 세 의미는 이동과 퍼짐, 감소라는 점에서 상이하지만 주어만 명시되는 구문적 특성을 공유하기에 같은 그룹으로 묶었다. ‘오르다’와 달리 ‘X가 내리다’ 구문이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이동 동사의 경우 이동하는 주체 이외에 경로에 있는 근원이나 목표에 대한 구문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며 이로 인해 지표가 동반되는 구문이 우선적으로 기술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전의 이러한 제시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 관점에서 이동의 의미를 ‘내리다’ 동사의 원형으로 본다면 퍼짐과 감소의 의미는 원형의 정교화 관계에 있는 확장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구문은 내리는 목표 장소를 명시하는 경우로 주어가 사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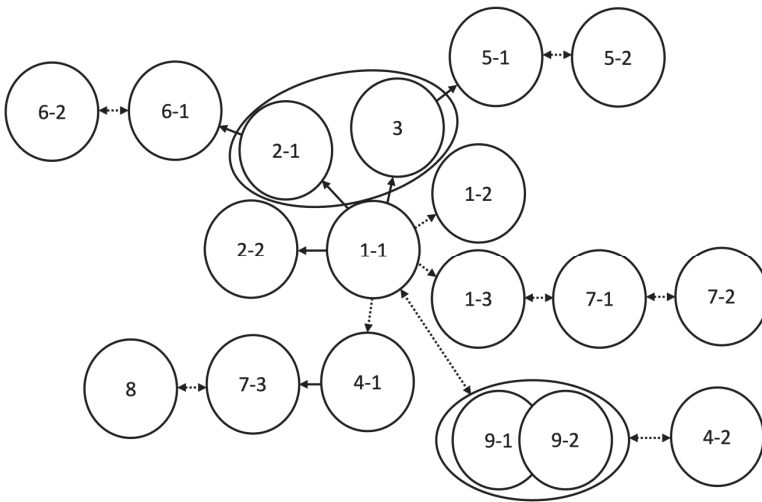
의미와 비행기가 착륙하는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이 의미들 역시 물리적 이동 의미의 정교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구문의 두 의미는 물리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원형의 도식적 정교화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첫 번째 의미인 ‘한 장소(목적지)에 내리다’는 의미와 세 번째 구문의 의미인 ‘한 장소(교통 수단이며 내리는 이동의 출발지)에서 내리다’는 이동의 목표(target)와 근원(source)을 명시하는 차이를 갖는 정교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 두 의미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다른 초점화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문 5와 6의 의미 역시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는데 2-1과 3의 이동 유발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2의 의미는 ‘인터넷 상의 글을 삭제하다’라는 추상적인 이동의 의미로 구체적 이동인 5-1의 의미와 상호 유사성을 가지는 확장의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6-2의 의미는 ‘가루를 체에 치다’로 구체적 이동이지만 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루의 경로에 있는 장소의 의미로 6-1과 상호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구문인 7번째 구문은 양적인 감소와 연결되며, ‘살이 빠지다’의 1-3 의미와 유사하다. 그리고 이 구문의 두 번째 의미인 ‘음식이 소화되다’는 양의 감소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지만 소화라는 과정이 비유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기에 상호 유사성이라는 연결 고리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구문의 의미에서 특별한 것은 7-3의 ‘막, 커튼을 내리다’의 의미이다. 실제 이 의미에서 막이나 커튼은 밑으로 펼쳐나가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은 막의 하단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4-1의 ‘소매, 머리를 내리다’의 의미와 같이 래내커의 주관적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여덟 번째 구문의 의미인 ‘(땅에) 뿌리가 내리다’ 역시 실제로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퍼짐의 의미이며, 전체 뿌리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뿌리 시작에서 하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한 내리다 동사와의 연관성을 갖는다. 4-1과 7-3은 정교화의 관계이며, 8은 이들과 유사성에 기반하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구문은 ‘상을 내리다’의 9-1과 ‘명령을 내리다’의

9-2 의미를 갖는다. 이 두 의미는 모두 사회적 위계 질서 속에서 상이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위계상 더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더 아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당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원형 의미와 은유적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의미와 관련하여 4-2의 ‘판단, 결정을 내리다’의 의미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을 내리면 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판단이나 결정 역시 내리다 동사가 사용되는 것은 판단의 과정이 종결되어 존재한다는 상호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내리다 동사의 개별 의미의 네트워크를 래내커의 도식성과 유사성에 기반해서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서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배열 중 일부의 의미(1-3, 4-1, 4-2 등)가 의미적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고 배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내리다’ 동사의 의미 네트워크

결론적으로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는 반의어적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의어의 경향이 모든 의미 항목에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두 동사의 의미적 원형이 대상의 상승과 하강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동사 어휘 의미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하는 대상인 탄도체가 수직적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상승 혹은 하강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이동 구문인 ‘X가 Y에서 Z로 V하다’의 구문과 결합하여 상승 이동을 부각시키는 지표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대표적 이동의 지표인 출발점과 목표 중 이동 구문의 목표편향성으로 인해 목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다.

4. ‘오르다/내리다’의 합성어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는 현대 국어에서 합성어를 이루어 빈번하게 사용된다. 다음 예에서 사용된 ‘곧아오르다’ 동사가 그 한 예이며, 화자가 얼거나 마비되어 꼼꼼하여지거나 뻗뻗하여지는 상황을 형용사 ‘곧다’와 ‘오르다’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 (14)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흙바닥에 앉아 있자니 손발이 얼어들고 온몸이 곧아올랐다. <홍명희, 임꺽정>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오르다’ 합성어는 28개, ‘내리다’ 합성어는 20개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²⁵⁾ 그리고 합성의 특징을 보면 오르다와

25) ‘오르다’ 합성어: 곧아-오르다, 괴어-오르다, 기어-오르다, 꿰어-오르다, 나-오르다, 날아-오르다, 달아-오르다, 되-오르다, 때-오르다, 떠-오르다, 뛰어-오르다, 물-오르다, 바라-오르다, 벽차-오르다, 번쳐-오르다, 부어-오르다, 불타-오르다, 뻗쳐-오르다, 솟아-오르다, 쌍심지-오르다, 옷-오르다, 자라-오르다, 젖어-오르다, 차-오르다, 치-오르다, 칩떠-오르다, 타-오르다, 피어-오르다.
‘내리다’ 합성어: 굽어-내리다, 깎아-내리다, 꺼-내리다, 끌어-내리다, 날아-내리다, 넘-내리다, 녹아-내리다, 대-내리다, 돌아-내리다, 뛰어-내리다, 물어-내리다,

내리다가 형태적으로 본 동사적이지만 의미적으로 방향(direction) 혹은 경로(path)를 의미한다. 그로 인해 합성 과정에서 해당 동사에 접두되는 동사들은 대부분 양태(manner)를 의미하는 동사들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르다’ 동사 합성어 28개 중에서 21개는 이런 양태 의미를 갖는 합성어 동사이며, 다음 예문처럼 ‘달아오르다’, ‘타오르다’ 등의 사례가 있다. ‘끓어’는 동사 ‘끓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되며, ‘타오르다’의 ‘타’는 ‘타다’ 동사와 관련된다. 동사 ‘끓어오르다’와 ‘타오르다’는 ‘오르다’의 상승 의미를 가지며, ‘오르다’에 결합된 동사는 상승의 개념이 정교화되는 방식 혹은 양태에 대한 의미를 보충적으로 표현한다.

- (15) ㄱ. 주전자 물이 끓어올라 넘치고 있다.
 ㄴ. 기세 좋게 타오르던 산불이 사그라졌다.

동사 ‘내리다’ 역시 20개 중 14개의 합성어가 동사와 결합하며, 내려가는 하강 의미와 하강의 특정 양상을 강조하는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 다음 예문에서 ‘비가 흘러내린다’는 비가 유리창의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특히 시냇물처럼 내려가는 양상을 ‘흐르다’ 동사와 결합하여 표현한다. 그 다음 예문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적 이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오르다’와 결합하여 ‘오르내리다’라는 동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 (16) ㄱ. 유리창 위를 비가 줄지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ㄴ. 짐을 옮기는데 승강기가 고장 나서 걸어서 오 층까지 오르내리느라고 혼났다.

이러한 합성어 동사 역시 구체적인 이동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된 추상적인 상승과 하강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다음 (17ㄱ)

부어-내리다, 뿌리-내리다, 사-내리다, 심살-내리다, 쓸어-내리다, 오르-내리다, 진땀-내리다, 황-내리다, 흘러-내리다.

은 감정의 고조를 ‘차오르다’ 동사로 표현하고, (17ㄴ)은 의도적으로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것을 ‘깎아내리다’ 동사로 표현한다. 전자는 감정을 용기 안의 물로, 사람을 감정을 담은 용기로 보는 은유가 작용하며, 후자는 실제 하강 이동이 아닌 평판 혹은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 ‘정상은 위, 비정상은 아래’의 방향적 은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7) ㄱ. 나는 잣아드는 부네의 방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ㄴ. 길상의 처지를 깎아내리지 않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될 수만 있으면 더 천한 신분이기를 바랐다.

합성어 동사에서 ‘오르다/내리다’와 결합하는 형태소가 동사 파생이 아닌 경우가 있다. 우선 명사가 결합되는 경우는 ‘오르다’에서 4회(때-, 물-, 쌍심지-, 옷-), ‘내리다’ 동사는 6회(대-, 뿌리-, 사-, 심살-, 진딧물-, 황-)가 사전에서 발견된다. 이외에도 ‘오르다’ 동사는 접두사 ‘되-’, ‘치-’와 결합하는 합성어 동사가 2개 등재되어 있다. 다음 예문에서 ‘물오르다’는 물/수분의 존재를 통해 생명력 혹은 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수분의 존재와 상관없이 생명력/활기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 (18) ㄱ. 오늘 한창 물오른 싱싱한 생선이 나왔다.
ㄴ. 사람들은 신부를 일러 꽃 같다 하고, 갓 시집온 새 각시 고운 자태 꽃 각시라 부르며, 이팔을 지나 물오른 나이를 두고는 꽃다운 나이라 하지만….

동사 ‘오르다’는 접두사와 결합하는데 다음 (19ㄱ)에서와 같이 오르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접두사 ‘되-’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동사 ‘내리다’ 역시 (19ㄴ)처럼 명사 ‘뿌리’와 결합하여 특정 현상의 근원이나 기반이 구성됨을 의미한다.

- (19) ㄱ. 오전에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 고갯마루에 되올랐다.
 ㄴ. 유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때는 고려 시대이다.

이러한 동사 ‘오르다/내리다’와 결부된 합성어 동사의 파생은 다양한 품사의 어휘와 결합하여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동사와 결합하여 상승/하강의 이동의 특정 양상을 기술하는 의미적 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사 이외의 명사나 접두사와 결합하는 파생도 존재하며, 접두사 결합된 동사의 의미적 특성은 동사 결합과 마찬가지로 이동 양태의 기술이었다.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의미적 전이가 발생하지만 상승이나 하강의 이동과의 관련성은 유지된다.

Ⅲ.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의 수직 이동과 관련되는 두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의미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다. 두 동사 ‘오르다/내리다’는 다의어 동사로 개별 의미들은 상승이나 하강 의미를 의미적 원형으로 한 방사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다의어 동사의 방사 구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고, 이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두 동사의 의미 기술이 대체로 적절하다는 것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수직적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동이라는 의미적 원형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다의어의 의미 네트워크가 ‘오르다’와 ‘내리다’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동사의 의미적 관련성 역시 각 의미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의어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하여 원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일반 의미와 전체 체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일반 의미와 달리 원형은 범주 구성원의 도식성이 잘 드러난 대표적 사례를 지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동사 ‘오르다/내리다’의 원형은 상승/하강 이동이다. 그러나 동사의 개별 의미에는 이동을 함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비이동의 의미 역시 개념화되는 과정에서 이동의 의미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환유적 확장과 은유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환유적 확장은 이동이라는 원형적 의미가 정교화되거나 특정 양상이 부각되는 경우이며, 은유적 확장은 비이동의 의미가 이동의 의미와 유사한 점을 기반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이다.

이동 동사는 특정 구문과 결합하여 이동 의미를 실현한다. 동사 ‘오르다/내리다’라는 수직 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동하는 탄도체, 출발점과 도착점의 지표가 있으며, 이동의 원인이 되는 다른 개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구문과 함께 사용되어 특정 의미가 발현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어떤 대상이나 특성의 발생과 관련한 ‘오르다’는 주어와 발생 장소의 구문과 사용되었고, ‘내리다’는 주로 사역자와 대상이 타동 구문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동사 ‘오르다/내리다’는 다른 동사, 명사, 형용사, 접두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한다. 이러한 합성어 동사들도 상승과 하강의 의미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 ‘오르다/내리다’ 동사에 결합된 동사들은 이동의 양태를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며, 상승과 하강의 의미를 정교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동사 ‘오르다/내리다’의 의미적 특성을 더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시도이다. 해당 동사의 다의성이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원형과 주변적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방사상 범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기술 역시 이러한 관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동사의 의미적, 구문적 특성이 종합적으로 동사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으며,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합성어 동사의 사용까지 의미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URL: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연세한국어사전, URL: <https://ilis.yonsei.ac.kr/ysdic>

<연구논저>

변영수, 「‘오르다’의 의미 확장 연구」, 『겨레어문학』 39, 2007, 5~39쪽.

이동혁, 「“X-이 Y-을 Z-에게서 V-다” 구문의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2008, 65~95쪽.

이종렬, 「국어 은환유의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27, 2005, 45~70쪽.

조은정, 「한일 공간 이동동사의 메타과적 고찰 -「あがる, あげる/ 올라가다, 올리다」와 「さがる, さげる/ 내려가다, 내리다」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31, 2005, 63~81쪽.

Barcelona, A.,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 Barcelona eds.,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Berlin, NewYork: Mouton de Gruyter, 2000.

Croft, William, and Alan D. Cruse,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Geraerts, Dirk & Hubert Cuyckens,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Goldberg, Adele, *Constructions at Work: The Nature of Generalization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Goossens, L. et al., *By Word of Mouth: metaphor, metonymy, and linguistic action in a Cognitive perspectiv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5.

- Goossens, L., “Metaphonymy: The interaction of metaphor and metonymy in expressions for linguistic action”, *Cognitive Linguistics* 1, 1990, pp. 323~340.
- Jakobson, Roman, *Russian and Slavic Grammar: Studies 1931-1981*, Linda R. Waugh and Morris Halle eds., Berlin · New York · Amsterdam: Mouton Publishers, 1984.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akoff, George & Mark Turner,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Langacker, Ronald W.,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2nd edn.)*, Berlin: Mouton de Gruyter, 2000.
- _____,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Radden, G., “How Metonymic are Metaphors?”,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0, pp. 93~108.
- Rosch, Eleanor,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Issue 3, 1973, pp. 328~350.
- _____,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Eleanor Rosch and Barbara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78, pp. 27~48.
- Taylor, John R.,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Vendler, Zeno,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Wierzbicka, Anna, “‘Prototypes save’: on the uses and abuses of the notion of ‘prototype’ in linguistics and related fields”, Tsohatzidis, S.L. ed., *Meanings and prototypes: Studies in linguistic categor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0, pp. 347~367.
- Курилович, Е.Р., “Заметки о значении слова”, *Очерки по лингвистике*, М.: Изд.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2, pp. 237~250.

Research on the Polysemy of Verbs of Vertical Movement

– Focusing on ‘Oreuda’ and ‘Naerida’ in Korean –

Ahn, Hyug*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escribe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erbs of vertical movement ‘oreuda’ and ‘naerida’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two verbs are polysemous verbs which are composed of prototype and peripheral meanings. These individual meanings form a radial category which is a semantic network with various expanded meanings based on the semantic prototype of movement.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 verbs is compared to the semantic descriptions of the verbs in Korean explanatory dictionaries. The peripheral meanings are explained as metaphorical or metonymic extensions of the semantic prototype. Metonymic extension refers to a peripheral meaning whose semantic aspect of the movement is more elaborated or highlighted than others, and metaphorical extension happens when a peripheral meaning has a semantic similarity to the prototype of vertical movement.

The verbs of vertical movement ‘oreuda’ and ‘naerida’ are used in certain constructions of a sentence. In particular, ‘oreuda’ designating the occurrence of a property (or properties) is us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ubject and a place of occurrence, and ‘naerida’ is mainly used in a transitive construc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with a cause and a moving object. In addition, the verbs are combined with other verbs, nouns, adjectives, and prefixes to form compound words, and these compound verbs also perform the function of elaborating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of rising and falling movement and of diverse semantic extensions.

Key words: Oreuda, Naerida, Polysemy, Semantic Network,
Compounding, Cognitive Linguistics

필자 E-Mail: hyugahn@skku.edu

투고일: 2024년 4월 19일 / 심사완료일: 2024년 4월 29일 /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3일